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19:00 (청년)	
예비자 교리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사도들의 모후 Cu.	10월 13일(일) 12:00	강당
우리어머니 Cu.	10월 13일(일) 11:40	식당
울뜨레야	10월 20일(일) 11:40	강당
사목회의	10월 24일(목) 17:40	강당

수험생을 위한 묵주기도

10월 13일(일)부터 매일 대성전에서 저녁미사 후에 수험생을 위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많은 신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가족미사

- 일시 : 10월 26일(토), 오후8시(특전미사)
- 장소 : 소성전(오후 7시20분 묵주기도 시작)
- * 10월 26일에는 대성전에서 묵주기도가 없습니다.

본당의 날 61주년 기념 초청강연

- 주제 : 행복하게 사는 법
- 일시 : 10월 20일(일), 오후 2시
- 장소 : 대성전
- 강연자 : 하성용 신부님 / 성진 스님

2025년 달력 광고 모집

- 2025년 본당 달력 광고를 모집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접수처 : 본당 사무실 02-857-8541

알림

- 오늘은 군인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10월 20일(일)에 전교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10월 27일(일)에는 전신자 성지순례로 교중미사(10시 30분), 12시 미사는 없습니다.
- 11월 2일(목, 위령의 날) 위령미사 봉헌은 10월 31일(목)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선교후원 홍보활동 안내

- 일시 : 10월 19일(토) ~ 20(일)
- 종합 미디어 선교매체인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의 선교후원 홍보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구역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5구역3반	정순덕	안젤라	의정부교구/백석동
10구역7반	오태순	시몬	서울대교구/구로1동
17구역5반	김주현	베드로다미아노	인천교구/중2동

다음 주일(10/2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5구역	청소	6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10월 02일 ~ 10월 08일)

- 교무금 6,724,000원
- 주일헌금 5,320,660원

- 서만심 6만원 김천길10만원 이경미 5만원
심진보10만원 김창현10만원 심점순 5만원
김성기10만원 구상호10만원 신종구 5만원
손현일10만원 임명수 5만원 이재욱 5만원
- 감사헌금 우영숙10만원 김미영 5만원 조예원10만원
이도아10만원 김하린10만원 박홍민 5만원
장복례10만원 조혜원10만원 최미희 5만원
이윤숙50만원 나경민20만원 정지윤 3만원
한옥희10만원 김이용10만원 김 OO 5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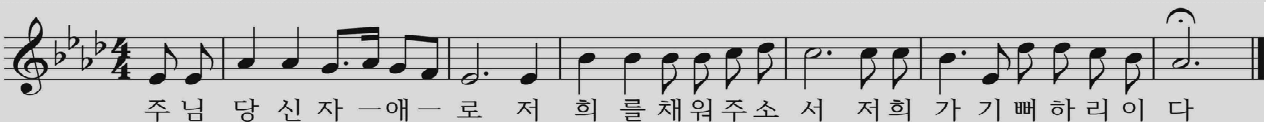
월일	해설	복사		독서	
10/13	황원선	오성한	신종구	임종윤	손정주
10/20	백희자	심재순	김영균	윤상기	김성해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0/13	박용환	박형순	손상민	옥윤필	오광운
10/20	이화봉	장인홍	최석준	최승일	최영만

성가번호 ♪ 입당 : 29 ♪ 예물준비 : 220, 221 ♪ 영성체 : 496, 152 ♪ 파견 : 31

화답송



주님 당 신자 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새 '미사 전례식 총지침(2002년)' 에 따른 간주된 미사 전례 지침

강론

선포된 말씀을 누구나 듣기는 하지만 더 깊이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하도록 사제는 강론을 하여야 한다(총지침, 29항 참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데에 강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론은 성서 말씀의 내용이나 미사 통상문 또는 그 날 미사의 고유 전례문의 어떤 관점을 적절히 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총지침, 65항). 강론은 독서대나 주례석에서 한다. 강론 다음에도 묵상을 위하여 잠시 침묵한다.

강론은 원칙으로 주례 사제 자신이 한다. 공동집전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경우 부제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평신도에게는 결코 맡길 수 없다(독서 지침 24항).

주일과 의무 축일에 백성이 참석하는 모든 미사에서는 강론을 해야 하며 중대한 사유 없이 생략할 수 없다. 다른 날에도 더구나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시기 평일, 그리고 백성이 많이 참석하는 축일이나 특별한 기회에는 강론을 하는 것이 좋다. 강론 다음에는 알맞게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총지침 66항).

신경

주일과 대축일에 신경을 외운다. 이 때에 길다는 이유만으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대신에 ‘사도 신경’ 만을 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신경은 회중이 교대로 또는 함께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보편 지향 기도

“하느님 백성은 보편 지향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세례 때 받은 자신의 보편 사제직(세례 사제직)을 수행하며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총지침, 69항). 주례자는 주례석에서 간단한 권고로 신자들이 기도하도록 이끌고 맺는 기도로 마감한다. “기도 지향들은 소박하고 단순하게 공동체의 청원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총지침, 71항). 이 기도는 독서대나 다른 적절한 곳에서 부제나 선창자 또는 독서자나 평신도가 바친다.

꼭 주일미사가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기념하는 미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기본적인 기도 지향 순서 : 교회, 위정자와 온 세상의 구원,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지역 공동체
- 2) 되도록 많은 신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설자가 혼자 기도하는 것은 피하고 보편 지향 기도를 위한 별도 봉사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다. 기도 지향도 반드시 네 개일 필요는 없고 그 이상이 되어도 무방하다. 또한, 상황에 특별한 미사 거행에서는 기도 지향을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다.
- 3) 보편 지향 기도는 교회 공식 전례 중 보편적인 지향으로 바치는 기도이므로, 미사 전 본당신부에 의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보편 지향 기도를 신자 개인이 임의로 바치면 안된다.
- 4) 보편 지향 기도는 주례자가 주례석에서 이끌며 지향은 봉사자가 독서대에서 말한다. 회중은 서서 지향이 끝날 때마다 다 함께 간구를 노래하거나 낭송하며 기도에 참여한다. 또는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독서 지침 31항).